

이승만
낙
깨기

이승만에
씩워진
7가지 누명

• 남정욱
류석춘
편저
•



백년동안

머리말 _4

남정욱 우남 이승만, 제대로 알고나 떠드십니까

제1부 초등학생용 모략 격파하기

이승만은 독재자? _15

김광동 국민이 물러나란다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독재자를 보셨나요?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요? _42

조우석 죄송하지만 그건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승만은 6.25가 발발하자 제일 먼저 도망쳤다는데? _65

권혁철 전쟁이 터졌을 때 지휘부를 후방으로 옮기는 게 이상한 일?
오히려 피난이 너무 늦었지요

제2부 청소년, 청년용 사기극 폭로하기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 _91

남정욱 그럼 1년 전에 정부를 조직한 북쪽은 대체 뭐죠?

이승만은 친일청산도 안하고 친일파를 비호했다는데? _120

김용삼 건국 당시 내각을 보면 북한은 거의 다 친일파.

남한은 독립운동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제3부 성인용 협잡 박살내기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라는데? _159

배진영 무슨 앞잡이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미국을 협박까지!

이승만은 항일투쟁을 했나? _193

류석춘 펜이 칼보다 강한 것처럼 국제분쟁은 총보다 외교가 정답!

복습·심화학습

이승만과 대한민국 왜곡의 현장을 가다 _225

이명희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의 실태

이승만은 항일투쟁을 했나?

펜이 칼보다 강한 것처럼
국제분쟁은 총보다 외교가 정답!

-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독립운동의 세 가지 노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독립운동 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만주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군대나 경찰 혹은 행정기관 나아가서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인물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무장투쟁' 노선이다. 일제의 강점 1년 전인 1909년 안중근의 의거로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 노선은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920년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그

리고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노선은 일본의 강력한 통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1932년 김구가 이끈 임시정부의 주도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무장투쟁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은 중국공산당 혹은 소련 공산당에 소속되어 그들의 지휘를 받는 활동이었다. 일본의 감시와 통제가 심했던 만큼 이 노선은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이 인접한 국가에서 폭력투쟁을 용인하는 공산당 세력에 의지하며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자적인 무장투쟁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국내의 민족주의 노선이 추구한 '실력양성' 노선이다. 일제가 강점한 한반도 내부로부터 역량을 키워 장차 다가올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학술 언론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노선이다. 그러나 이 노선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해외에서 추구한 독립운동 노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총독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추구한 사람들은 오늘날 친일 논란에 일부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

나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지 않는 한 이 노선의 중요성과 의미를 폄하할 수 없다. 동아일보사와 고려대학교를 세워 민족의 역량을 키운 김성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셋째,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미주에서의 '외교독립' 노선이다. 식민지 상황에서 즉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에 의해 독립을 추구하는 노선은 언론이나 출판 혹은 대중집회, 그리고 로비 등을 통해 각국의 여론 나아가서 세계 여론에 호소하여 한국의 독립이 필요함을 알리는 노력이다. 이 노선은 또한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 동포들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그러한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승만이 이러한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수학한 기간을 포함하여 35년 가까이 미국에 머물며 이 노선의 활동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1941년 여름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판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 『Japan Inside Out』(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비봉, 2015)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의 미국 공격을 예언했다. 진주만 공격이 있기 6개월 전의 일이다. 그는 또한 이 책에서 그로 인해 일본은 패망의 길로 들어

서게 되며, 한국은 독립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 말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이 책에 관한 서평을 『Asia』(1941년 9월 호)에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진실인 것이 너무 두렵다.”

이승만은 또한 하와이에서 『태평양잡지』 등을 발행하고 ‘한인기독교학교’ 등을 세워 동포를 계몽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선을 두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즉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노선이었다는 비아냥도 한다. 하지만 이 노선은 해외에 진출한 한민족 내부의 역량에 기초해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만큼 무장투쟁 노선같이 한민족 외부의 지원 내지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장점 그리고 일제나 총독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세 번째 노선을 추구한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일부에서는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승만이 남긴 기록과 활동을 살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허황

된 주장인지 쉽게 알게 된다. 이승만은 초지일관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또한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빌미는 건국 직후 진행된 친일청산 과정에서 반민특위 활동을 일부 견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 준동하던 남한 공산화 책동에 대응해야 하는 이승만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48년 새로 탄생한 국가의 건설을 주도해야 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으로서 이미 사라진 적 일본을 따랐던 ‘친일파’를 정리하는 일보다는, 이제 새로 등장한 적 북한을 따르는 ‘공산세력’을 상대로 투쟁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남북한의 친일청산 과정을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이승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류석춘·김광동이 『시대정신』 2013년(봄호)에 발표한 논문 「북한 친일청산론의 허구와 진실」이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 기록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까지 이승만이

추구한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이승만의 일본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04년부터 1944년까지 독립운동을 하며 쓴 이승만의 ‘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일기를 시작하기 전 한성감옥에 국사범으로 있던 시절, 즉 1900년에 원고를 마친 『청일전기』다. 이 두 문헌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을 가진 기록이다. 1900년 이승만은 25세의 청년이었다. 『일기』를 시작한 1904년 그의 나이는 29세였고, 『일기』를 마친 1944년 그의 나이는 69세였다. 이승만 평생에 걸친 기록들이다.

『청일전기』

2014년 북앤피플이 출판한 『청일전기(淸日戰記)』는 청일전쟁(1894~1895)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1900년, 만 25세의 나이가 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1875~1965)이 한성감옥에서 순한글로 원고를 마무리한 책이다. 이승만은 정부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독립협회 간부들과 함께 한성감옥에 투옥 중이었다. 출판은 원고가 마무리된 지 17년 후 하와

이 태평양잡지사에서 이루어졌다.

1917년 출판된 『청일전기』 「서문」에서 이승만은 “만일 한인들이 오늘날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이나 대만(臺灣: 타이완) 인종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말 것 같으면 이 전쟁의 역사를 알아도 쓸데없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올 터이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여 태평양이 마르고 히말라야가 평지가 될지라도 우리 대조선 독립은 우리 한인의 손으로 회복하고자 말 터인즉 우리 한인이 갑오전쟁(淸日전쟁)의 역사를 모르고 지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옥중에서 이승만은 청일전쟁에 관한 중국책 『중동전기본말(中東戰紀本末)』(1897)을 발췌 및 번역하고 그에 더해 “전쟁의 원인” 그리고 “권고하는 글”이라는 논설을 덧붙여 원고를 완성했다. 『중동전기본말』은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 겸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알렌(Young J. Allen, 林樂知, 1836~1907)과 중국 언론인 채이강(蔡爾康, 1852~1921)이 공동으로 편저해 1897년 전체 18권(전편 8권, 속편 4권, 3편 4권, 부록 2권)으로 출판한 청일전쟁에 관한 역사책이다. 중국(中國)과 동영(東瀛: 바다의 동쪽 나라, 즉 일본)의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을

끝었다. 언론인 유근(柳瑾, 1861~1921)이 돕고 사학자 현채(玄采, 1856~1925)가 발췌 및 정리하고 국한문으로 번역해 두 권의 책으로 묶어 1899년 『중동전기(中東戰記)』라는 이름으로 번역본이 출판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900년에 쓴 「서문」에서 이승만은 이 번역본을 참고해 원고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청일전쟁의 원인”(『청일전기』에 포함된 이승만의 글)

청국이 일찍 개화하여 자기 나라를 먼저 튼튼히 하고 대만을 개화시켰다면 일본이 싸움을 걸어올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국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 조선을 잃어버리고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만약 대만이 세계정세를 먼저 알았다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일전쟁으로 인해 대만이 독립국임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대한의 독립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 일본에게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수치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 못하면 제 권리를 제 손으로 찾지 못하고 이웃 친구가 대신 찾아줄 지경이 되었겠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만 명의 목숨을 바치며 잃었던 독립 권리를 찾아서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애초부터 몰랐기 때문에 대한의 독립을 한 번도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본이 우리 대신 일어나 싸워주고 세계를 향해 생색내며 자랑하자 남들이 모두 의로운 싸움이라고 일본을 칭찬했다. 이는 진실로 우리에게서 분하고 원통한 일이다. 대한의 권리와 백성들이 이를 분하게 여겨 내 나라 독립을 우리 손으로 펼쳐보기를 한마음으로 결심한다면 이 수치를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를 분하게 여길 줄 알려면 먼저 그 내막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보아 외국의 형편과 내 나라 형편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늘날 세계에 통용되는 국제법에는 속국으로 분류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그 나라 내정을 상국(上國)이 간섭하여 임금이 임의로 결단하여 처리하지 못하며, 외국과 국교를 수립할 권리가 없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려면 상국이 대신 공사를 보내 정해준다. 청국은 약 200여 년 전에 맺은 대수롭지 않은 언약(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맺은 강화조약)을 이유로 거드름을 피우며 상국 행세를 했다. 옛날 관습으로 해마다 사신이 들어가 공물(貢物)이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물건이나 받으면 흠족하게 여겼을 뿐 정치적으로는 조금도 일체 상관하지 않았다.

이때 동양에서 일본이 먼저 깨어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옛 법만 고집하다가는 아시아가 모두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청국은 국제 정세에 어두워 점점 쇠약해져가고, 러시아는 동으로 진출하여 매년 청국 북방의 영토를 침탈해갔다. 또한 이전에 소위 청국의 속국이라던 나라들을 30년 동안 차례로 남에게 빼앗겨 태국, 미얀마, 베트남, 오키나와 등 여러 나라를 모두 잃고 대한 하나만 남았는데, 끝내 청국의 속국이라고 하다가는 대한마저도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오직 독립을 이룩해야만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길 것이다.

본래 미국은 세계에서 남의 권리를 빼앗지도 않을뿐더러 남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을 의리로 아는 나라다. 때문에 조선과 통상하기 전에 청국 조정에 조선과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다. 당시 청국은 영국, 프랑스와 두 세 차례 전쟁(아편전쟁 및 청불전쟁)을 치른 후부터 서양 각국을 호랑이같이 무서워하고 있었다. 또 무슨 사건이 날까 두려워한 청국은 조선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일본과 미국이 즉시 조선과 조약을 맺고 독립국으로 예우하여 한성(서울)에 주재할 공사를 보냈다. 청국은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짐작하였으나 어리석은 생각에 겉으로는 조선이 속국이 아닌 체하고 속으로는 속

국으로 취급하고자 했다. 그래서 황사림(黃仕林·황츠린), 오장경(鳴長慶·우창칭), 원세개(袁世凱·위안스카이) 등을 차례로 보내 위엄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으려 했다. 한편으론 조선의 관리들을 회유하여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대국이니 조선은 속국된 직책만 잘 지키면 우리가 다 보호해주마” 하며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청국으로 데려가니 무례함이 막심했다.

외국인들도 청국이 그렇게 하는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청국이 이미 공문으로 조선은 속국이 아니라 했으니 그러한 비공식적인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다. 조선 신민이 깨달아 다른 나라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며 무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청국의 이런 행동을 몹시 미워하여 틈만 나면 조선 관리에게 알아들도록 권유하며 청국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 막았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개명하지 못하여 독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위 상국을 배반하지 않는 의리가 있다 하여 대부분 청국의 종노릇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또한 청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알고 태산같이 믿었기에 설령 독립이 좋은 줄 알아도 감히 독립하겠다는 마음을 먹

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에 일본은 더욱 분하게 여겨 심지어 조선을 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나고 군사력을 길러 무력으로라도 기필코 청국과 시비를 가리려고 작정한 지 오래였다. 그런 까닭에 일본은 1885년 4월 18일에 청국과 천진(天津·텐진)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무슨 일이 있어 군사를 파견할 일이 생기면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기로 했다.

그러나 청국은 이 조항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했다. 또한 일본을 과거의 허약한 일본으로만 알고 업신여기며 조약 내용만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고 여전히 세계정세에 어두운 채로 지내다 1894년 갑오년에 동학란이 발생하자 속국을 보호한다고 경솔하게 조선에 병력을 보냈다가 필경 일본과 전쟁이 벌어져 봉변을 당하고, 수도 북경(北京·베이징)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선의 독립을 허락한다고 선언했다. 비록 이 사건의 빌미를 동학당이 제공했다 하나 실상은 청국과 대만이 세계정세에 어두워 그 원인을 제공한 지 오래였다.

우선 청국에 대해 말해보자. 청국이 진작부터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깨달아 먼저 정치를 개명한 후 소위 속국이라는 몇몇 나라를 자기들이 직

접 가르쳐 개명시켜놓고, 국제법의 이치에 따라 내정도 간섭하며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고 이끌었다면 다른 나라가 처음부터 침범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국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상책(上策)을 잃어버렸다.

이미 상책을 잃었으나 위태로운 상황을 알았으므로 남이 호의로 권하는 말을 들어 조선은 당당한 독립국이라고 세계에 선포하고, 대만을 진실되게 설득하여 스스로 변하게 했더라면 이웃 나라를 보호하려고 서로 의지하여 서양 각국들을 막자는 의리가 접잡다는 칭찬도 듣고 체면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못 했으니 중책(中策)마저 잃었다.

급기야 전쟁에 이르게 되자 일본은 작심하고 나서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청국의 낡은 풍습을 없애려고 공문을 보내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진작 일본의 생각을 파악하고 의심을 풀어줬다면 비록 하책(下策)이나 그다지 낭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국은 일본의 의심을 풀어주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 물정에 어두운 채 조선을 또다시 속국이라고 고집했다. 청국의 이러한 태도는 대만과 통상하는 여러 나라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잘못이 크다.

다음은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이 대한 독립을 위해 청국과 싸운 것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였지 이웃 나라에 대한 의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 대한의 영토를 탐내거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이유는 각국의 여론 때문이었으므로 전혀 은혜라고만 할 수도 없지만, 1894년을 전후로 대한의 독립을 위해 힘쓴 것은 세상에서 모두 칭찬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들의 정책을 옳게 행사했다면 오늘날 동양 형편이 이렇게 (왕실이 아관으로 파천하고 혁신당의 갑오경장 실패)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만 뜻밖에 올미년 사변을 일으켜 갑오경장의 나라 만세 국모(國母: 명성황후)를 시해하여 신민의 공분(公憤)을 일으키고 양국의 교제를 손상하여 대한의 형편이 크게 변했다.

일본은 대한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동양의 대세(大勢)를 그르쳐 각국의 이해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서울에 주재하던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공사가 역당을 동원하여 제 마음대로 일을 벌인 결과라고 하나 일본 정부가 그 책망을 면할 수 없고, 조선에 수비 병력을 두어 남의 독립 권리를 침해했으니 당초 목적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속히 군사를 철수하여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며,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애초의 명분을 지켜 이전의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옳다.

대한의 경우, 영·미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자주독립국으로 처신하였다면, 이미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독립을 인정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보냈으므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대한이 조약을 체결할 때 청국은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못했고, 대한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도 대한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국이 항의한다 하더라도 대한은 독립국이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형편도 아니었다.

당시 서양 각국은 러시아를 막기에 전력하여 유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더니 러시아가 다시 아시아 동편으로 진출하기 위해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자 사정이 점점 급하게 되었다.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하루 빨리 진보하여 러시아의 동진을 견제할 전략을 연구하고 있을 때 대한과 청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을 자는 형세였으니 항상 염려하던 상황이었다.

만일 대한이 이 기회를 틈타 국제법에 따라 자주 독립권을 찾고 근대개화에 나섰다면, 대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싫어하여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대한을 보

호하며 개화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슨 까닭인지 관민이 한 마음으로 남의 종노릇 하는 것을 달게 여겨 좋은 기회를 잃고 제 몸 하나 편할 도리만 생각하다 세계에 큰일이 생기게 하고 비로소 당당한 권리를 찾았지만, 이는 남의 체면만 세워주고 나는 바보 노릇을 한 것이니 남의 책망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조선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착취행위로 도탄에 빠져 민심이 사나워진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탐관오리들의 부패한 행동에 격분하여 일어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말고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차분하게 대책을 세우려 했다면, 정부는 마지못해서라도 전국의 민심을 따라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학이라 이름하고 어리석게 정감록에 무슨 말이 있다, 혹 무슨 귀신을 부린다 하여 천하고 무식한 말을 믿고 도처에서 소요를 일으켜 필경 난민이 되고 말았다. 이는 내 나라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기왕 일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모르고 그랬다 치고 한번 경험한 후에는 능히 짐작할 만하거늘, 들으니 지금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요사한 말을 믿고 작당하여 기도를 한다 하며, 부적을

써서 민심을 현혹케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저들의 어리석음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나라를 위해서도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다.

최근에 청국에 의화단(義和團)이라는 것이 생겨 동학과 같이 난리를 일으켜 북경을 침범하여 각국 공·영사를 살해하고 기독교 회당을 불 지르고 외국인을 몰아낸다고 하여 각국의 보호병과 여러 번 싸웠다. 천하가 군사를 일으켜 청국으로 들어가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필경 천하에 큰 난리를 만들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끝내는 자기들도 다 죽을 것이다.

청국이 1894년에 자기들보다 국력이 약한 일본에게 여지없이 패하고도 오늘날까지 목숨을 부지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힘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각국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기회를 잃지 말고 외교와 내치만 잘하면 남들이 우리를 넘겨다보는 행위가 다 막힐 것이다. 그럼에도 천하를 반대하여 여러 나라가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니 나라 하나 망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지니와 동서양에 큰 난리를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놓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

더욱이 이 전쟁의 결과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한이 가장 위태롭다. 그러나 이는 세계정세에 달렸으므로 어찌할 수 없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우리나라 신민들이 이제까지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서로 실수가 있었으니 탓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위태로운 형편을 분명히 깨달아 청국이 스스로 불러들인 참화의 행적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오는 기회를 잃지 않는다면 국가나 세계에 다행일 것이다. 그중에 판민이 극히 조심할 것은 이런 상황에 처하여 지방에서 작은 소요라도 일어나면 난민이 된 백성이 먼저 죽을 것이고, 나라가 위태롭게 될 터이니 크게 염려할 일이다.

「이승만 일기」

아직 일반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승만은 독립 운동을 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손수 쓴 「일기」를 남겼다. 1904년 11월 4일부터 1934년 12월 28일까지 만 30년 그리고 1944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까지 만 1년, 합해서 총 31년간의 「이승만 일기」가 영문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이들 일기는 서로 다른 크기의 수첩, 노트, 일기장, 그리고 타이핑한 B4 사이즈의 종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묶은 편책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본은 현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다. 「일기」는 현재 정리가 끝나 2015년 10월 연세대 이승만연구원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국문본, 영문본, 그리고 영인본을 동시에 출판하였다.

「이승만 일기」에 등장하는 일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일본이라는 단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배제하고, 본격적으로 일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대목을 상당한 분량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 골라, 이승만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감 없이 살펴보도록 한다.

1933년 1월 13일 「이승만 일기」(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서 임시정부 전권 대사 활동)

미 영사관에 들렀다. ……길버트 영사가 나에게 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나고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우리는 국제연맹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중일 문제를 국제연맹의 실질적인 현안으로 올리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1910년 강대국들은 일본의 세계 정복 계획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한국을 희생하면 일본이 이에 만족하고 만주에서 개방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 세계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은 일본의 침략 야욕의 첫 번째 단계이고 만주가 다음 단계이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극동의 평화를 실현하고 국제연맹을 존속시키기 위해 강대국들이 서로 함께 모여 일본을 그들이 원래 속한 섬나라로 돌려보낼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나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지원해줄 만한 회원국들이 있는지 그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약소국들이 모두 반(反)일본적이니 당연히 “당신의 동맹국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소국들을 길게 거론하며 그들이 돌아오면 나를 그들과 접촉하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1933년 2월 4일 「이승만 일기」(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서 임시정부 전권 대사 활동)

픽카드가 오후에 전화를 해서 스웨덴 대표인 레인지 박사가 「리튼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연맹이 임명한 위원회의 19명 위원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그에게 전화를 해서 오후 5시 그의 자택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영해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으나 서영해는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는 중년이 지나 보였고 영어를 잘 구사했다. 나는 레인지

박사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미묘한 시점이어서 한국 문제를 상정할 회원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한국의 독립 문제가 상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한국 독립 문제는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제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연맹과 중국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란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일본의 요구에 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은 만주국이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한인들도 포함하여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면서, 국제연맹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리튼 보고서」가 틀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본의 서류를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뉴스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준 공문서의 자격(semi-official status)으로 제출하길 원한다. 사무국에서 이를 회원국들에 돌리도록 요청하려면 중국보다는 다른 회원국이 제출하길 바라며, 이것이 현재로서는 내가 바라는 전부라고 답했다. 그는 나의 의도를 알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스웨덴 대표인 스웨덴 수상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질을 주며 나를 위해 그와의 만남을 주선해보겠노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왔다.

1933년 6월 12일 「이승만 일기」(제네바 회의 활동 후 소련 방문 준비 중)

중국 공사관에…… 갔다. 나는 러시아로 가려는데 이 때문에 퀴어와 연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Conference)가 오늘 오후 3시에 신학박물관(Theological Museum)에서 개최되었다. 영국 국왕과 수상이 개막 연설을 했고 중국 대표들도 꽤나 바쁘게 움직였다. 윌리엄스가 와서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국왕과 수상의 연설을 논평도 하며 서로 긴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는 내가 의원이나 언론인 중에서 주요 인물들과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극동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근시안적이어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영국이 일본을 화나게 할 일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일본에 맞설 만한 나라는 없다. 오직 미국만이 언젠가는 점점 증가하는 일본의 위협에 도전이 될 것이다. 만약 영국 정치인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갖추어 일본이 영국의 국익에 어떻게 해가 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멀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미국과 손을 잡고 대신 일본과 노닥거리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33년 7월 19일 「이승만 일기」(모스크바 방문 중)

러시아 외무성 직원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외무성은 당신과 당신의 방문을 알고 있습니다. 비자는 실수로 발급된 것이지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무성이 러시아를 떠나려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비자가 발급된 후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내가 뭘 잘못했나?”고 질문을 했더니, 그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 당국이 벌써 군인들에게 당신을 강제 추방하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므로 외무성이 자기를 공식적인 대표로서 이번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를 발급한 데 대해서 죄를 하러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웃으며 “누가 뒤에 개입했는지 알 것 같다. 당신네 외무성의 진심을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내 편지를 접어서 관련 부서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 편지를 받으며, “전달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전달한 메시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공손하게 절을 하고 나갔다.

토빈슨 양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라. 비자가 있으니 강제 출국 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일본이 나를 러시아 밖으로 쫓아내려고 획책한 것이며 러시아 외무성이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마당에 친구들의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나도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일본인들이 방해할 할까봐 호놀룰루로 내가 모스크바에 왔다는 전보도 못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나의 도착을 알리기로 했다. 호놀룰루로 전보를 보내고 중국 공사관으로 갔다. ……이제 보니 일본이 나를 계속 추적하여 내가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의 어떠한 마찰이나 자극을 피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처음에는 발끈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여 신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킬까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보니 이 문제는 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오면 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1944년 9월 1일 「이승만 일기」(미국에서 태평양전쟁의 끝자락을 보며)

나는 그에게 “그루 박사님, 우리가 한국으로 곧 돌아갈 수 있도록 대사

님이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동경에 10년이나 계셨으니 일본인들이 어떤지, 어떻게 그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귀국하신 후 미국인들에게 일본인들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주셔서 우리는 대사님이야말로 우리들의 훌륭한 투사(great champion)가 되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신과 당신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카이로 선언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으니 이제 필요한 건 약간의 인내심입니다”라고 답했다.

내가 “네, 우리 한인들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세 단어 ‘적절한 과정을 거쳐(in due course)’란 말이 우리를 또다시 30년 내지 40년간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저들은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격려를 해주어 자신들의 진심을 입증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는 “이 박사님, 우리가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박사님이 안보회의로 보낸 두 통의 서신입니다.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통은 읍서버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요청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한 통은 영토 합병과 정치적 주권에 관한 서신인데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회의는 정치나 영토 문제

를 제기할 성격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철회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편지 두 통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박사가 회의의 성격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한국은 국제연합이란 집안에서 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정의와 공정함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모이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울어낼 것입니다. 우는 아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자기네 민족이 있지만 유엔에는 대표할 나라가 없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침략의 첫 희생자이고 투쟁이 저지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발 마음을 여시고 약간의 동정심과 공정함으로 저희를 봐주십시오.

1905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가쓰라 공작이 비밀 협정을 맺고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1919년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우리의 결심을 입증하기 위해 수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루스벨트)

를 협박하였고 그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에게 중국 산둥 반도를 내줌으로써 일본과 유화정책을 맺고 한국의 정의를 바라는 호소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곧 충돌하리란 걸 알고 있었으며 그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우리 민족만 제외되어 한국인들은 물론 우리의 많은 미국 친구들도 한국을 다른 강대국에 팔아넘길 또 다른 비밀 협약이 있거나 없었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다. 그들은 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시는군요”라고 입을 열었다. 나는 “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니까요”라고 응답했다.

그루 대사는 내가 편지를 되가져가기를 바랐으나 나는 동지들과 의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한인들을 대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계속 「서신」을 보내야 하고, 내가 보낸 「서신」들의 사본을 파일에 보관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우리 민족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평가

위에서 제시한 이승만의 자필 기록과 출판물을 보고도 이승만이 항일투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청일전기』에 실린 이승만의 글은 그가 만 20세(1900)에 기록한 것이다. 제네바 국제연맹 활동을 하며 남기 일기는 그가 만 58세(1933)에 기록한 것이다. 1944년의 일기는 만 69세에 남긴 기록이다. 이들 기록 이외에도 이승만은 평생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들 기록 어디에도 이승만의 친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과 다른 노선, 또는 다투던 노선을 따랐던 사람들의 험담이 일부 있다. 예컨대 하와이에서 무장투쟁 노선을 추구하며 '대조선독립단'을 만들어 이승만과 대립하던 박용만, 그리고 하와이를 포함한 미주지역 한인활동의 주도권을 놓고 이승만의 '대한인동지회'와 대립하면서 '대한인국민회'를 이끌던 김현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이덕희,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북앤피플, 2015).

역설적이게도 박용만과 김현구는 모두 이승만과 한성감옥 생활을 같이 한 독립운동 초기의 동지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에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컨대 김현구는 스스로의 자서전과 더불어 속칭 '삼만전(三晩傳)'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박용만, 정순만'에 관한 평전을 영문으로 남겼다. 이 글에서 김현구는 이승만에 대해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내용을 기초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이 글은 1987년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서대숙 교수가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Autobiography with Commentaries on Syngman Rhee, Pak Yong-man, and Chong Sun-man*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 리들리(Reedley) 출판사에서 초판이 출판된 김원용이 쓰고 손보기가 엮은 『재미한인 50년사』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일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세간에 퍼뜨렸다. 이 책은 국내의 '혜안'출판사가 2004년 재간행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출범한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후 1925년 이승만이 탄핵당하기까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방과 모략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경우에 따라 근거 없이 친일파로 매도되기도 했고, 그의 독립운동 방식을 두고 일부에서는 ‘포시랍다’고 비아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기」 혹은 친필 원고에서 드러나듯이,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식은 당시 최고의 전문성을 구사한 활동이었다. 일본이 처한 국제관계의 약점은 물론 강대국 사이의 역관계를 고려한 판단에 기초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며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문은 물론 영어로도 책을 쓰고 또 신문방송에 기고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일이 결코 무장투쟁 방식보다 손쉬운 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무장투쟁의 기상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운동이다. 이에 반해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실력자들을 설득하고 또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국내외의 동포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역사는 이승

만의 판단이 정확했고 결국 승리했음을 옹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승만은 위의 기록에 더해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집권한 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반일정책을 펴서 우리 현대사에 크나큰 유산을 남겼다. 6.25전쟁의 와중인 1952년 이승만은 일본에 대한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나아가서 『유태하문서』(국사편찬위원회, 2015)가 보여주듯이 이승만 집권기간 내내 지속된 일본에 대한 강경 정책 덕분에, 1965년 체결한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산업화에 필요한 종자돈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영부인 프란체스카가가 남긴 난중일기 『6.25와 이승만』(기파랑, 2010, 98쪽)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950년 8월 14일의 일기다. 전선이 낙동강으로 밀려 대한민국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도달한 때의 상황이다.

“무초 대사는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했다. 그의 주장은 그곳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부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 설명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 들었다. 순간 무초는 입이 굳어져버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대통령은 권총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처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로 나를 쏴 죽이죠.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소. 모두 총궐기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 이승만은 항일 무장투쟁의 정신을 누구보다 확실히 보여준 인물이다.

주

- 1 이외에도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시킨 대표적 문헌은 다음과 같다. Richard C. Allen(본명 John M. Taylor), 윤대균 옮김, 『미국과 이승만』(원제: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 합동통신사, 1961.
Quee-Young Kim, *The Fall of Syngman Rhe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3.
송건호, 『서재필과 이승만』, 경우사, 1980.
한승인, 『독재자 이승만』, 일월서각, 1984.
김삼웅, 『독부 이승만 평전』, 책보세, 2012.
김상구, 『다시 분노하라』, 구절리, 2012.